“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 인도네시아 개발협력사업 해외봉사활동을 다녀와서 -

페인팅

물품전달

나무심기

LED전구 전달

글. 봉사단장 김동수
(봉사단원 : 김영숙, 양귀섭, 송옥순, 조은숙, 김안순, 이경하, 허경숙, 김숙희
이미애, 이효순, 정상, 김용식, 강용구, 백충환, 김진아, 김재환, 김정효, 김시내)

지난해 11월 말, 19명의 봉사단원들은 7시간의 비행 끝에 지구 저편 인도네시아 땅을 밟았다. 보통 사람들은 인도네시아 하면 조인성 주연의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을 떠올리지만, 2014년 약 30만명이 사망한 쓰나미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 화산폭발과 홍수로 항시 재난상태에 있는 나라, 2억 6천여만명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인 나라, 아프리카처럼 먼 곳까지 여자 아이들이 물을 길어 나르는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 봉사단원들은 수도 자카르타를 경유하여 1시간의 비행을 더 걸친 후에야 목적지인 인도네시아 중자바 스마랑지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쉴 틈 없이 학교 현장으로 달려간 우리는 열대의 더위보다 더 뜨거운 아이들의 환영을 받으며 위생교육, 나무심기, 화장실개선 등의 활동들을 숨 막히듯 열심히들 해치웠다. 그리고 쓰레기가 난무하고 변변한 화장실 하나 없는 지극히 비위생적인 마을을 방문하였고, 그곳의 열악한 전기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가져간 태양열 LED 전구를 전달할 때는 봉사단원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한 마음이 일기도 하였다.

지구상에는 의식주가 곤란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 물질문명이 넘쳐나는 나라에서 온 우리는 상처에 바를 연고와 그 흔한 과자하나 없는 곳, 집 앞에 버려진 폐수로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서 선량한 눈빛으로 살아가는 마을 주민을 바라보며 각자 많은 생각과 반성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다짐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이렇듯 적십자를 통한 나눔과 봉사는 계속될 것이다.

※ 광주전남지사는 앞으로 3년 동안 스마랑지역에 화장실과 식수 환경을 개선하는데 1억5천만원의 도움을 주게 된다.

광주대외-1703-23-01

2017 Spring Vol.549 광주전남지사

RedCross NEWS

신년맞이 떡국나눔
(2017.01.01.(일))

하얗고 뽀얀 색을 띄고 있는 떡국은 지난 좋지 않았던 일들을 잊고 새해엔 밝고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먹는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적십자 인도주의활동에 동참해주시고, 많은 응원을 해주시는 우리지역 시·도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자 새해 첫날 무등산 증심사에서 신년맞이 떡국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감하고 일출과 함께 새 기분으로 2017년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많았는지 떡국나눔 행사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북적거렸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노란조끼를 입고 모인 적십자사 가족들은 얼은 손을 입김으로 불어 녹여가며 열심과 정성을 다해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분명히 피곤 할만도 한데, 힘든 기색은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행사장은 웃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떡국을 드시고 ‘새해 첫날 귀한 떡국을 대접받아 기분이 좋다.’ ‘너무 맛있다.’ ‘감사하다.’ 등의 인사말을 건네주시며 행사장을 더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 시·도민과 적십자 가족들 모두가 올 한해 꽃길만 걷길 기원합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 도와줬으면...”

적십자사와 함께하게 된 계기와 나눔에 대한 철학

광주 · 전남지사는 우리지역 시 · 도민과 지역 단체 및 기관이 나눔활동에 동참하여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매년 12월 적십자회비 모금을 알리는 사랑의 등불점화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11년도부터 꾸준히 사랑의 등불점화식에 참여해준 **대한건설협회 전라남도회 김영구 회장님**을 찾아뵙고 적십자사와 함께하게 된 계기와 나눔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았다.

Q1. “사랑의 등불점화식” 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A. 우리 건설협회 전남도회에서는 적십자사와 함께하기 전부터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도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지역 사회시설을 직접 방문하면서, 아직도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분들이 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적십자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Q2.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십자사 뿐만 아니라 전남 지역 곳곳에 성금 및 장학금을 전달하며 호남지역 기부문화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나눔에 대한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A. 최근 몇 년 동안 건설업계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눔은 내가 풍족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며 고통을 분담하여 어려움을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부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로부터 얻은 부의 일부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발전과 화합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Q3. 적십자사가 건설협회의 특별회비로 어려운 이웃들을 어떻게 돕길 희망하십니까?

A. 비록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회원사들의 마음이 담긴 성의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특히, 관심을 받지 못하고 도움의 손길이 미치기 힘든 복지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이런 곳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4. 17년 한 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할 계획이십니까?

A. 우리 전남도회에서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회공헌사업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우리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회원사들이 참여해 모은 작은 정성이 다양한 분야의 소외계층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향후에도 지금처럼 기부문화 활동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 사랑의 선물주머니 (2016.12.08.(목))

대한적십자사 광주 · 전남지사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위원장 진숙현)는 2016년 12월 8일(목)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사랑의 선물주머니 300세트를 제작했다. 사랑의 선물주머니는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후원으로 제작되었으며, 주머니 안에는 김, 햄, 멸치, 치약 등 11종 약 50,000원 상당의 물품으로 구성되었고, 적십자사가 희망풍차 결연을 맺어 연중 지속적으로 돌보고 있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적십자 봉사원이 직접 세대를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또한, 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는 매년 재난구호활동, 징검다리사랑 네트워크(조손가정 지원사업), 봉사회 육성 및 훈련 지원, 각종 사업 지원비 등으로 매년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과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다.

CMB광주방송 제빵행복나눔행사 (2016.12.27(화))

CMB광주방송은 2016년12월 27일(화) 광주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제빵행복 나눔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CMB광주방송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을 통해 진행되었다. 이날 만들어진 빵은 우리지역에 폐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 11가구를 찾아 어르신들이 연말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각 세대에 TV를 설치해 드렸다.

에이즈 예방 캠페인 전개

(2016.12.2(금))

2016년 12월 2일(금) 광주송정역에서 세계에이즈의 날(World Aids Day/WAD)을 맞이하여 에이즈 예방과 감염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다.

“에이즈 제로화” 를 위해 광주시민들의 HIV/AIDS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시키고, 안전한 성(性)문화 인식제고와 AIDS감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7년 설맞이 사랑의 장보기 행사

(2017.1.24(화))

설을 맞이하여 사회협력기관(동아에스텍,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보해양조)과 함께 사랑의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행사는 광주 · 전남지역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130가구를 선정해 한 가구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여 명절에 필요한 쌀, 부식 등 물품을 구입하고, 전통시장도 살리는 1석 2조의 나눔활동이다.

RCY광주 · 전남 위원회 사랑나눔 물품전달

(2016.12.26(월))

광주 · 전남지사 청소년적십자(RCY) 후원조직인 RCY광주 · 전남위원회(위원장 류중현)는 2016년 12월 26일(월) 고려인마을을 찾아 이주민들이 추운 겨울을 든든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랑나눔 물품전달식을 가졌다. RCY광주 · 전남위원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통해 백미(100포)와 라면(100box) 구입해 전달하였다.